

공통 감각과 미적 소통

- 칸트 미학을 중심으로 -

임 성 훈

(서울대학교 미학과)

1. 들어가는 말

미와 예술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다. 그러나 과연 주관적이기만 한가? 얼핏 보기에 답하기 쉬운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 물음은 미학의 아포리아(aporia)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18세기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 문제를 자신의 세 번째 비판서인 『판단력비판』(Kritik der Urteilskraft)¹⁾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칸트가 내리는 결론

1) 『판단력비판』은 Immanuel Kant(1774), *Kritik der Urteilskraft*, Bd. 10, in zwölf Bänden, Wilhelm Weischedel (Hg.), Frankfurt am Main(이하 KU로 약칭)에서 인용한다.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한국어 번역본, 즉 임마누엘 칸트(2009), 『판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그리고 I. 칸트(1996), 『판단력비판』, 이석운 옮김, 박영사를 참고하여 인용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공통 감각, 미적 소통, 미적 판단, 이율배반, 미적 공통 감각, 문화
Gemeinsinn, ästhetische Kommunikation, ästhetisches Urteil, Antinomie,
ästhetischer Gemeinsinn, Kultur

은 미와 예술에 관한 판단이 주관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타당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 미학의 핵심 테제인 이른바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타당성”의 주된 내용이다. 이 테제가 갖는 미학사적 그리고 철학사적 의의는 크다. 미학사적 관점에서 한편으로 미와 예술의 주관성이 단지 사적으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철학사적 관점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성의 보편성만이 아니라 감정의 보편성 또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²⁾

이 논문은 이러한 칸트 미학의 특징을 통해 이성 중심적인 합리적 소통만이 아니라 미적 소통(ästhetische Kommunikation)의 가능성과 그 조건의 문제를 특히 “공통 감각”(Gemeinsinn, *sensus communis*)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여타의 판단과 구별되는 미적 판단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미적 판단의 가능 조건은 무엇인가? 미적 판단이 주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공통 감각이란 무엇인가? 미적 판단, 공통 감각 그리고 문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미적 공통 감각”(ästhetischer Gemeinsinn, *sensus communis aestheticus*)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소통의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는가? 오늘날의 소통 문제에서 공통 감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2) 이는 특히 칸트가 미적 판단을 “주어진 표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감정을 개념의 매개 없이 보편적으로 전달가능하게 하는 것을 판정하는 능력”(KU, B160), “주어진 표상과(개념의 매개 없이) 결합된 감정의 전달가능성을 선형적으로 판정하는 능력”(KU, B161)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미적 판단의 네 가지 계기들

『판단력 비판』의 “미의 분석학”(Analytik des Schönen)(§1-§22)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상을 지성에 의해 인식하기 위해 객관에 관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 아마도 지성(Verstand)과 결합되어 있는 - 주관 및 주관의 쾌 또는 불쾌의 감정에 관계시킨다. 그러므로 취미판단[미적 판단]은 인식판단이 아니며, 따라서 논리적이 아니라, 미적(ästhetisch)이다. 미적이란 그 규정근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KU, B4).

이 첫 구절은 주목할 만한 것인데, 왜냐하면 사실상 미적 판단의 핵심 내용과 그 특징을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 판단은 지성이 산출하는 개념에 따르는 인식 판단이 아니다. 둘째, 미적 판단은 상상력의 놀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성과 완전히 독립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미적 판단도 판단인 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성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적 판단은 객관적인 인식을 구성하는 판단이 아니라, 주관의 쾌나 불쾌의 감정에 그 토대를 둔 판단이다. 넷째, 미적 판단은 객관적 원리가 아니라, 주관적 원리에 근거한다. 여타의 판단과 구별되는 미적 판단의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고찰은 이 논문의 주제를 이루는 미적 판단과 공통 감각의 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적 소통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도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만 한다. “미의 분석학”은 미적 판단의 기능 조건을 묻고,³⁾ 이를 네 가지 계기, 즉 ‘무관심성’, ‘무개념성’, ‘목적 없는 합목적

성’, ‘필연성’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2.1. 무관심성(Interesselosigkeit)

취미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표상방식을 일체의 관심 없이(ohne alles Interesse) 만족이나 불만족에 의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만족의 대상을 아름답다고 일컫는다(KU, B16).

미적 판단은 “일체의 관심 없이”라는 표현이 말해주고 있듯이 무관심적인 조건 하에서 내려지는 판단이다. 달리 말해, 미적 판단은 여타의 관심들, 예컨대 “쾌적한 것”(das Angenehme)에 따른 만족에 속하는 감각적 관심(KU, B9)⁴⁾이나 “좋은 것[선한 것]”(das Gute)에 따른 만족에 속하는 도덕적 관심(KU, B10)⁵⁾과도 구분되는 판단이다.⁶⁾ 칸트가 이러한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성과 감각은 각각의 관심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적 판단의 고유한 한 특징인 아름다움의 “불편

3) 『판단력비판』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칸트는 우선 미적 판단의 가능 조건의 문제를 “초월적 관점”(transzendente Absicht)에 따라 논구하고 있다(KU, BIX).

4) “그런데 내가 한 대상이 쾌적하다고 언명하는, 한 대상에 대한 나의 판단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 판단이 감각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욕구를 약동시키고, 그러니까 만족은 대상에 관한 한갓된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그러한 객관에 의해 촉발되는 한에서, 그 대상의 실존과 나의 상태와의 관계가 전제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적한 것에 대해서 한낱 ‘그것은 마음에 든다(es gefällt)’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쾌락[즐거움]을 준다(es vergnügt)’고 말하는 것이다.”

5) “선한 것[좋은 것]이란 이성을 매개로 순전한 개념에 의해 마음에 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단지 수단으로서만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해 좋은 것[유용한 것]이라고 부르고, 그 자신만으로 마음에 드는 다른 어떤 것은 자체로 좋은 것(an sich gut)이라고 부른다. 양자 안에는 언제나 목적의 개념이, 그러니까 한 객관 또는 한 행위의 현존(Dasein)에 대한 만족, 다시 말해 어떤 이해관심이 함유되어 있다.”

6) 이성의 관심은 “존경”(Achtung)에서, 사적 관심은 “경향성”(Neigung)에서 산출되는 데 반해, 미적 관심은 “호의”(Gunst)에서 비롯된다(KU, B15 참조).

부당성”(Unparteilichkeit)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KU, B37). 그러니까 미적 판단의 무관심성이란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관심, 객관에 대한 경험적인 관심, 실천이성적인 관심, 지적인 관심 등과 같은 일체의 관심들에서 자유로운 관심을 말한다.⁷⁾ 일체의 관심에서 자유로운 관심, 즉 미적 무관심성은 아도르노가 비판하는 있는 바와 같이 ‘거세된 쾌’⁸⁾나 수동적인 관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고유하면서도 특유한 쾌의 감정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무관심성의 미학은 특히 18세기 미학의 중요한 성과인 미적 자율성의 확립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2.2. 무개념성(Begriffslosigkeit)

개념 없이(ohne Begriff)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름답다(KU, B32).

미적 판단은 “대상들의 인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판단하는 주관”에 속하는 비판이다(KU, BLIII 참조). 따라서 미적 판단은 개념에 기초한 인식판단일 수 없다. 위의 구절에서 “개념 없이”라는 말은 바로 이를 강조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미적 판단에서 개념이 배제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적 판단 또한 일종의 판단이며,

7) 칸트의 무관심성의 미학은 렉키(B. Recki)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론적 인식이나 실천적 유용성에 대한 일체의 관심 없이 사물들에 놀이하듯이 관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를 통해 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게 한다. Birgit Recki(2001), “Achtung vor der zweckmäßigen Natur - Die Erweiterung der kantischen Ethik durch die dritte Kritik”, *Kant und die Berliner Aufklärung. Akten des IX. Internationalen Kant-Kongresses*, Bd. III, Berlin-New York, p. 298 참조.

8) 아도르노는 칸트의 무관심성의 미학을 “거세된 쾌락주의의 미학, 쾌 없는 쾌의 미학 (Ästhetik zum kastrierten Hedonismus, zu Lust ohne Lust)”라고 비판하고 있다. T. W. Adorno(1998),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Main, p. 25 참조.

판단인 한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념이 매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칸트가 미적 판단을 “상상력과 지성 사이의 자유로운 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미적 판단에서도 당연히 개념이 작용한다. 다만, 그 작용의 양상이 인식판단의 경우와는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념들의 능력은, 개념들이 혼란된 것이든 분명한 것이든 간에, 지성이다. 그리고 미적 판단으로서의 취미판단도 (다른 모든 판단들이나 마찬가지로) 지성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지성이 취미판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이 판단과] 대상의 표상을 (개념 없이) 표상의 주관 및 주관의 내적 감정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하는 능력으로서 지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이 판단이[미적 판단이] 보편적 규칙에 따라서 가능한 한에서 그러한 것이다(KU, B48).

인식판단에서는 “주어진 대상이 감각들을 매개로 상상력을 활동시켜 잡다를 형성하게” 하고, 또한 “상상력이 지성을 활동시켜 잡다를 개념들에서 통일”시킨다(KU, B65). 이는 객관적 인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일이다. 물론 미적 판단에서도 인식능력들(공, 상상력과 지성)이 상호 작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대상의 규정성에 얽매이는 인식이 아니라, “인식일반”(Erkenntnis überhaupt)⁹⁾에 관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적 판단에서 상상력은 개념과 직관을 단지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유 상태에서 지성과 놀이를 한다. 여기서 직관은 개념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된다(reflektiert). 이런 점에서 칸트의 ‘무개념성의 미학’은 미적 판단이 객관적 원리에 근거한 인식판단과는 구별되는 판단이란 점을 밝히고, 또한

9) 미학과 인식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인식 일반” 개념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임성훈(2006), 「비판과 반성으로서의 미학 - 칸트의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타당성에 관하여」, 『미학』 제48집, 특히 189-191쪽 참조.

주관적 원리에 근거한 미적 판단이 개념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보편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2.3. 목적 없는 합목적성(Zweckmäßigkeit ohne Zweck)

미는, 합목적성이 목적의 표상 없이도 대상에서 지각되는 한에서, 그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다(KU, B61).

‘목적 없는 합목적성’은 칸트 미학의 난해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¹⁰⁾ ‘목적 있는 합목적성’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개념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개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 논문의 주제가 아니기에 여기서는 예를 들어 기초적인 이해만을 구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한다. ‘망치’는 ‘벽에 못을 박다’라는 목적에 적합한 사물이다. 우리는 망치를 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즉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충분히 표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망치’와 ‘벽에 못을 박다’ 사이에는 합목적적(zweckmäßig)인 관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우리는 ‘목적 있는 합목적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는 미적 판단의 경우 ‘목적 없는 합목적성’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들판에 피어 있는 민들레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는 민들레가 왜 하필이면 그러한 형태, 색깔, 구조 등으로 그곳에 그렇게 피어있는지를, 즉 그 목적을 표상하지는 못한다. 그

10) ‘합목적성’ 개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목적론과 함께 논의될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 미적 판단은 주관적이며 형식적인 합목적성을 그 원리로 하는 반면, 목적론적 판단은 객관적이며 실재적인 합목적성을 그 원리로 한다. 칸트 철학에 나타난 “합목적성” 개념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특히 Giorgio Tonelli (1957/58), “Von den verschiedenen Bedeutung des Wortes Zweckmäßigkeit in der Kritik der Urteilskraft”, *Kant-Studien*, 49 Jg. 참조.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가정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정된 목적에 따라 우리와 민들레 사이에 합목적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관계는 “형식에 따른” 것이며,¹¹⁾ 따라서 “이 민들레는 아름답다”라는 미적 판단은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형식에 근거한 판단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목적 없는 합목적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개념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는 예컨대, 미적 놀이, 미적 반성, 인식일반 등을 함께 고려해 논의할 때,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2.4. 필연성(Notwendigkeit)

개념 없이 필연적인 만족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것은 아름답다(KU, B68).

칸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필연성은 개념에서 도출된 필연성이 아니다. 그러기에 이 필연성은 이론적이거나 객관적 또는 실천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없다. 또한 이 필연성은 경험의 보편성에서 추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필연성인가? 미적 판단의 필연성은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할 때, 이 판단은 주관성에 기초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ansinnen)’¹²⁾는 의미에서의 필연성이다. 이러한 필연성은 특수한 종류의 것이다. 칸트는 이를 보편적 규칙의 한 “실례”(Beispiel)로서의 필연성, 그러니까 “견본적 필연성”(exemplarische Gültigkeit)이라고 말한다(KU, B67). 또한 직접적으로 제

11) 이에 관해서는 Wolfgang Bartuschat(1972), *Zum systematischen Ort von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Frankfurt am Main, pp. 108-109 참조.

12) 미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동사 ansinnen(안진넌)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임성훈(2006), 앞의 논문, 187-188쪽 참조.

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순전한 이상적 규범”(KU, B67)으로서의 필연성이다. 이러한 주관적 필연성은 근거를 갖고 있는데, 칸트에 따르면 그것은 “공통 감각”(Gemeinsinn)이다. 공통 감각은 “어떤 외감이 아니라, 우리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놀이에 의한 작용결과”(KU, B64f)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칸트는 공통 감각이 ‘규정적인 규범’이 아니라 “비규정적인 규범”(unbestimmte Norm)으로서 “현실적으로”(wirklich) 전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능히 취미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KU, B67). 물론 이러한 칸트의 주장을 공통 감각에서 미적 판단이 도출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칸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미적 판단의 주관적 필연성은 공통 감각에 근거한다는 것이고, 이는 미적 판단의 수행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¹³⁾

3. 미적 판단의 또 다른 지평: 취미와 문화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미적 판단의 문제를 초월적(transzendental)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도 논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¹⁴⁾ 이를 간과한다면, 칸트 미학의 다양한 측면을 읽어낼 수

13) Christian Harmut Wenzel(2000), *Das Problem der Subjektiven Allgemeingültigkeit des Geschmacksurteils bei Kant*, Kant-Studien Ergänzungshefte 137, Berlin/New York, p. 183 참조.

14) 비록 칸트가 『판단력비판』 “머리말”에서 “미적 판단력으로서의 취미능력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취미의 형성[교양](Bildung)이나 개발[문화](Kultur)을 위해서가 아니라, [...] 단지 초월적 관점에서 행해질 것”(KU, BIX)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판단력비판』의 “미의 분석학” 이후 칸트는 미적 판단을 초월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관점 나아가 이념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독해해야 할 부분은 『판단력비판』의 §41이다. 여기서 칸트는 초월적 관점에서 설명했던 무관심성의 미학과는 달리, 미적 판단의 문제를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은 미적 판단이 “관심”(Interesse)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언명되는 취미판단[미적 판단]이 그 규정근거로서 어떠한 이해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취미판단이 순수한 미적 판단으로 주어진 후에, 그것에 어떠한 이해관심도 결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 경험적으로 미적인 것은 오직 사회에서만 관심거리이다(KU, B161f).

무인도에 버려진 사람이 그 자신 홀로 있으면서 자기의 움막이나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꽃을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단장을 위해 꽃을 기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사회에서만 그에게 한낱 인간이 아니라 자기 나름으로 세련된 인간이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KU, B163).

칸트는 “미의 분석학”에서 순수 미적 판단의 문제만을 다루었고, “사회로의 경향성”의 결과인 “경험적 관심”(empirische Interesse)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언급된다하더라도, 단지 순수 미적 판단과 대비되어 부차적으로만 취급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미적 판단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성립하는 판단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칸트는 『반성』(Reflexionen)의 한 곳에서 “취미의 문화”(Cultur des Geschmacks)를 강조하고 있다.¹⁵⁾ “미의 분석학”에서는 우선적으로 미적 판단의 가능 조건을 탐구하기 위해서 초월적 관점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계몽주의자로서 칸트는 미학과 사회, 문화 사이의 긴밀

서는 안 될 것이다.

15) AA XV, R.993.

한 연관성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았다. 비록 칸트가 미적 판단과 문화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구절을 『판단력비판』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공통 감각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공통 감각이 미학과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주목할 만한 논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공통 감각과 미적 소통

4.1. 공통 감각

가다머(H-G. Gadamer)는 『진리와 방법』에서 공통 감각이 새로운 인문주의 전통과 정신과학의 인식 방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공통 감각은 논리적, 추상적 진리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그리고 공공적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가다머는 인문주의 전통에서 공통 감각이 갖는 의의를 특히 비코(Giovanni Battista Vico)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통감각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일반적 능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성(Gemeinsamkeit)을 만들어내는 감각이기도 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의 의지에 방향을 지시해주는 것은 이성의 추상적 보편성(die abstrakte Allgemeinheit)이 아니라, 한 집단, 한 민족, 한 국가 또는 인류 전체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보편성(die konkrete Allgemeinheit)이라고 비코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 공통 감각의 형성이 삶에 대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이다.¹⁶⁾

16) Hans-Georg Gadamer(1990), *Wahrheit und Methode -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가다머가 비코의 관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듯이, 공통 감각은 지성이나 논리적 참인 것으로서의 진리에 우선하는 인간의 감각 능력이다. 그러기에 공통 감각에는 삶의 구체성과 윤리적 실존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공통 감각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18세기 영국 철학자, 특히 샤프츠베리(Shaftesbury)와 그의 후계자들인 허치슨(Hutcheson)이나 흄(Hume)에게서도 발견된다.¹⁷⁾ 공통 감각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18세기 독일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는바, 칸트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다.¹⁸⁾ 칸트는 그렇지만 공통 감각을 상당 부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그가 공통 감각을 상식이나 건전한 인간의 지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판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 칸트가 『판단력비판』의 §40에서 언급한 “미적 공통 감각”(sensus communis aestheticus) 개념을 들 수 있을 것이다(KU, B161).

가다머는 18세기 독일 인문학에서 논의된 공통 감각의 이론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통 감각 본래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공통 감각을 판단력 개념과 관련시켜 논구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¹⁹⁾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적 미

Hermeneutik, Tübingen, p.26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진리와 방법』, 이길우 외 옮김, 문학동네, 2003, 61쪽.)

17) *Ibid.* p.30 (위의 책, 68쪽) “Common sense 개념은 스코틀랜드 철학에서 참으로 핵심적인 체계적 기능을 발휘했다. 스코틀랜드 철학은 형이상학 및 그 회의주의적 해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했으며, Common sense의 근원적이며 자연스러운 판단들을 기초로 새로운 체계를 이룩했다(Thomas Reid).”

18) 공통 감각(Common Sense)에 중점을 두었던 영국 철학이 독일 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예컨대, Manfred Kühn/ Heiner F. Klemme(2004), “Die Nachwirkung der schottischen Philosophie des Common Sense”, *Grundrisse d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18. Jahrhundert*, Basel 참조.

19) Hans-Georg Gadamer, *op.cit.*, p. 36(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앞의 책, 77쪽). “때로 ‘공통적인 지성(der gemeine Verstand)’이라고도 불리는 ‘건전한 인간 지성(der gesunde

학은 공통 감각을 판단력과 취미의 문제로 논구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통 감각의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가다머는 특히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공통 감각을 미적 판단의 문제로 환원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다머의 칸트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칸트의 공통 감각 이론은 결과적으로 미적 판단의 이론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공통 감각의 본래의 고유한 특징, 즉 삶의 실존성과 도덕적 측면을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다머의 비판에 수긍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비판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칸트가 미적 판단과 공통 감각의 관계를 중시하여, 심지어 “미적 공통 감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통 감각을 미적 판단의 문제로 환원해서 다루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미적 공통 감각”은 미적 판단의 또 다른 차원인 사회, 문화적 및 도덕적 차원과 이에 따른 소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를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다.

4.2. 공통 감각과 미적 판단의 이율배반(Antinomie)

칸트는 미적 판단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하며, 또한 전달 가능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미적 판단의 소통 가능성이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의 분석학”은 미적 판단이 개념에 기초한 판단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미의 분석학” 이후 “변증학”의 “이율배반(\$55-\$57)

Menschenverstand)’은 사실상 판단력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성격이 규정된다. 바보가 슬기로운 자와 구분되는 점은 그가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즉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올배반”의 정립과 반정립은 다음과 같다.

1) 정립(Thesis): 취미판단은 개념에 기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개념에 기초한 것이라면] 취미판단에 관해 (증명에 의해 결정되면서) 논의(disputieren)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반정립(Antithesis): 취미판단은 개념에 기초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취미판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취미판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일치를 이러한 판단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결코 논쟁(streiten)할 수 없기 때문이다(KU, B234).

“이올배반”에서는 무엇보다 미적 판단이 “논의”(disputieren)의 차원이 아니라 “논쟁”(streiten)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판단이란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개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첫째, 미적 판단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판단이며, 이에 따라 어떤 한 개념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적 판단이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바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미적 판단은 대상들의 한 개념을 지성이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규정하는 인식 판단이 아니다. 셋째, 미적 판단은 “객관의 (동시에 또한 주관의) 표상의 확장된 관계”(KU, B235)를 내포하는 판단이지만, 여기에 어떠한 증명도 수행될 수 없다. 넷째, 미적 판단이 관계하는 개념은 “감관의 객관으로서, 즉 현상으로서 대상의 (그리고 또한 판단하는 주관의) 기초에 놓여 있는 단지 초감성적인 것에 대한 순수한 이성개념”(KU, B236)에 속한다. 다섯째, 두 명제, 즉 “정립: 취미판단은 개념에 기초하지 않는다.”와 “반정립: 취미판단은 개념에 기초한다.”는 외견상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립가능하다. 왜냐하면 양자에 사용된 “개념”이 동일한 의미

20) 이하는 KU, §55-§57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왜 “미의 분석학” 이후 “미의 변증학”의 “이율배반”에서 미적 판단과 개념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가? 이 물음과 관련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칸트가 “이율배반”에서 칸트가 “초감성적”(übersinnlich)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미의 분석학”에서 미적 판단의 가능 조건의 문제를 네 가지 계기들을 통해 다루고 있지만, 초감성적인 것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²¹⁾ 칸트가 미적 판단의 “이율배반”의 정립, 즉 “취미판단은 개념에 기초하지 않는다.”에서 언급한 개념은 논리적이며 이론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정립에서 “개념”은 미적 판단이 인식 판단과는 구별되는 판단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에 반해 반정립에서 “개념”은 ‘초감성적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정립과 반정립에 사용된 “개념”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칸트가 “이율배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미적 판단에서 “초감성적인 것”으로서의 개념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미의 분석학”의 네 가지 계기들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는 없다. 다만, 네 번째 계기, 즉 미적 판단의 주관적 필연성을 논하면서 도입했던 “공통 감각” 개념에서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칸트는 “미의 분석학” §20에서 미적 판단의 필연성의 조건으로 “공통 감각의 이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미적 판단과 ‘초감성적인 것’의 관계가 뚜렷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양자의 관계는 “이율배반”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한

21) 이러한 난점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율배반”에 나타난 미적 판단의 “초감성적”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 해석의 한 예로 Paul Guyer(1997), *Kant and the Claim of Taste*, 2n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99-307 참조.

다면, 공통 감각은 미적 판단과 ‘초감성적인 것’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율배반”에 와서야 비로소 “일종의 공통 감각”으로서의 미적 판단에 내재한 초감성적인 이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미의 분석”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던 문제, 즉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한 미적 소통의 문제는 “이율배반”에서 미적 판단의 초감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지평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미적 소통은 사적으로만 타당한 소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소통을 추구한다. 물론 이러한 소통의 보편성은 인식을 구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초감성적인 것’의 이념에서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²²⁾ 비록 공통 감각이 “이율배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적 판단의 문제에서 초감성적인 이념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4.3. 공통 감각의 문화와 소통

미적 판단의 “상상력과 지성 사이의 자유로운 놀이”는 공통 감각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적 판단은 이러한 놀이를 수행할 수 없고, 단지 사적인 주관의 감각적 판단에 불과하거나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묻는 인식 판단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칸트는 “미의 분석학”의 네 번째 계기에서 공통 감각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22) 이는 미적 판단이 “규정적 판단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반성적 판단력”에 의한 판단이라는 칸트의 일관된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반성적 판단력”과 “초감성적인 것”의 이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지만 칸트 미학의 이해에 흥미롭고도 새로운 논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에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바와 같이 여기서 논의된 바는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그 함축적 의미와 위상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 “미의 분석학”은 초월적 관점에서 미적 판단의 가능 조건을 분석하는 곳이어서 공통 감각의 의미와 위상이 적극적으로 해명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칸트는 공통 감각이 “구성적”(konstitutiv)인지 아니면 “규제적”(regulativ)인지를 묻는 문제는 여기서 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KU, B67-68 참조). 따라서 칸트는 공통 감각에 대한 보충적 논의를 “일종의 공통 감각인 취미에 대하여”(Vom Geschmacke als einer Art von sensus communis)라는 제목이 붙은 §40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곳에서 칸트는 “미의 분석”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사상(Gedanke)을 전달할 수 있는 숙련성은, 개념을 직관에 그리고 다시금 직관에 개념을 결합시켜 하나의 인식으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또한 상상력과 지성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때에 이러한 두 마음의 능력[상상력과 지성의 합치는 법칙적이며, 규정된 개념의 강제성 하에 있다. [그런데] 단지 상상력이 그 자유 속에서 지성을 일깨우고, [또한] 지성이 개념의 매개 없이, 상상력이 합규칙적인 놀이(ein regelmäßiges Spiel)를 하도록 할 때에만, 비로소 그 표상은 사상이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합목적적인 상태의 내적인 감정으로서 전달된다(KU, B160-161).

§40에서 “미의 분석학”에서 논의된 미적 판단의 핵심 쟁점들(인식 판단, 놀이, 합목적성, 상상력, 감정의 전달가능성 등)이 다시 한 번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용된 구절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미적 판단의 고유한 특징과 그 함의가 공통 감각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미의 분석학” 이후, 미적 판단의 문제를 초월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논의하는데 있어 공통 감각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

망하고 있다. 특히 미적 판단과 문화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소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통 감각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미적 판단에서 공통 감각은 이성적 능력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사회 사이의 조화와 긴장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²³⁾

또한 §40에서 칸트는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상식, 즉 “공통적인 혹은 건전한 인간지성”(der gemeine oder gesunde Menschenverstand)과 “공통 감각”(Gemeinsinn)을 적극적으로 구분한다. 칸트에 따르면, 문화의 문제는 “건전한 인간지성”이 아니라 미적 판단인 “취미”에 속한다. 상식은 “건전한”(gesund) 것일 수는 있어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교화되지(kultiviert) 않은 인간지성”(KU, B156)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통 감각은 “공통적 감각의 이념”(KU, B157)으로서 아름다움이 문화 속에서 소통될 수 있는 가능 근거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칸트가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공통 감각의 준칙들”(Maxime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KU, B158-159).²⁴⁾ 준칙들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준칙, 즉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유하는 것”(an der Stelle jedes andern [zu] denken)으로서의 준칙은 미적 공통 감각의 소통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이 준칙은 비록 미적 판단이 주관성의 원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사적인 관심이나 이기적인 판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놀이로서의 판단이며, 또한 이로써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23) Kyriaki Goudeli, “Kant’s Reflective Judgement: The Normalisation of Political Judgement”, *Kant-Studien* 94 Jg., p.68 참조.

24) 칸트는 공통 감각의 준칙으로 1) 스스로 사유할 것, 2) 타인의 입장에서 사유할 것, 그리고 3)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사유할 것 등을 들고 있다. 1)의 준칙은 지성의 준칙이며, 선입견 없는 사유를 강조한다. 2)의 준칙은 미적 판단과 관련된 ‘확장된 사유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의 준칙은 일관성에 기초한 사유이며, 이성의 준칙이다. 칸트에 따르면, 3)의 준칙은 1)과 2)의 준칙이 충분히 성찰될 이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

찬성과 동의를 기대하는 판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준칙은 “확장된 사유방식”(erweiterte Denkungsart)(KU, B159)으로서의 미적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미적 판단은 “미적 공통 감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KU, B160), 사적 타당성을 넘어서서 보편적 타당성을 향해있는 “반성의 작용”(Operation der Reflexion)(KU, B157)에 그리고 이를 통해 ‘이념’에 관계한다.

칸트가 “미의 분석학”에서 미적 판단의 문제를 논하면서 교양이나 문화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미적 판단은 “미적 공통 감각”으로서 미적 문화 및 인문주의 정신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로서 칸트가 미학, 문화, 교양의 문제를 미적 판단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니와, 실제로 『판단력 비판』 여러 곳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60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예술의 완전성의 최고도가 목표인 한, 모든 아름다운 예술에 대한 예비학은 지시규정들에 있지 않고, 인문적 교양(Humaniora)이라고 부르는 소양(Vorkenntnis)에 의해 마음의 능력들을 문화적으로 도야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인문성(Humanität)은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참여의 감정(Teilnehmungsgefühl)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진솔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KU, B262).

미적 공통 감각에 의거한 감정은 사적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공유하는 ‘공통적인 감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문화의 과정 속에서 획득되어야 한다.²⁵⁾ 위의 인용문에서 “참여의 감정”이 강조된 이유도 바로 여

25) J. Kulenkampff(1995), “‘Vom Geschmacke als einer Art von sensus communis’. Versuch

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적 공통 감각”으로서의 미적 판단은 “참여의 감정”이 극대화되고, ‘미의 주관성’과 ‘미의 보편성’ 사이에 내재한 긴장(Spannung)을 문화 속에서 드러내며, 또한 이를 통해 미적 소통의 계기를 제시한다.

4.4. 토론: 미적 공통 감각의 현재성과 한나 아렌트

“미적 공통 감각”으로서의 미적 판단은 경험적으로만 확정될 수 없다.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편견이나 감각적 경향성 또는 객관적 원리에 근거한 사유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상호주관성을 고려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적 판단의 놀이에 근거한 보편적 소통은 억압적이거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참여의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적 공통 감각은 개별성의 존중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합치”(Zusammenstimmung)²⁶⁾를 추구하는 민주적 합의의 방식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미적 공통 감각의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의 미학, 예술이론 및 비평뿐만 아니라 문화이론, 사회이론, 정치이론 등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²⁷⁾ 여기서는 그 한 예로 칸트 미학에 함축된 정치 철학적 의미를 읽어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입장을 토론으로 개괄적이

einer Neubestimmung des Geschmacksurteils”, *Autonomie der Kunst? Zur Aktualität von Kants Ästhetik*, Andrea Esser (Hg.), Berlin 참조.

26) 독일어 Zusammenstimmung을 “합일”이 아니라 “합치”로 번역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Zusammen은 “함께”를 의미하는 말이고, Stimmung은 원래 “소리”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Zusammenstimmung을 붙여 해석하면 “함께 소리내기”가 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내는 소리라는 어감을 살리기 위해 “합일”보다는 “합치”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였다.

27) 그 예로 하버마스, 리오타르, 들뢰즈, 아렌트 등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공통 감각과 관련된 이들의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김종기(2004), 「칸트의 공통감과 그 독해의 문제」, 『대동철학』 27집을 참조.

나마 살펴보기로 한다.²⁸⁾

아렌트는 칸트를 우리의 감정에 “주관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주관적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상호주관성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사상가로 평가한다. 미적 판단은 나의 주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이를 아렌트는 비유적으로 “당신은 생각하기 위해서 혼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²⁹⁾ 또한 아렌트는 미적 판단과 관련하여 이성과 감성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미적 판단이 이성의 법에 복종하거나 종속된 판단이 아니라 “이성을 부여받은 존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란 점을 강조한다.

판단, 특히 미적 판단은 항상 타인과 타인의 취미를 반성하는 가운데,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능한 판단들을 고려하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인간이고 또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판단하는 것이지, 초감성적인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는 이성을 부여받은 존재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인식기관[이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식기관으로서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법에 복종한다. 이 법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자명하며 강압적인 것이다.³⁰⁾

아렌트는 칸트가 공통 감각은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적 판단을 “견본

28) Hannah Arendt(1989),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edited and with interpretive essay by Ronald Bein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옮김, 2002). 여기서는 한국어 번역판을 인용하되,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29) 위의 책, 132쪽

30) 위의 책, 132쪽.

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동의하면서, “미적 공통 감각”은 현실에서 확정되거나 강제적으로 규정된 감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서 추구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감각이라고 강조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미적 공통 감각의 특징은 미적 소통의 정치적 의미, 즉 개별성이 존중되는 소통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between)에서 이루어질 “합치”를 구하고자 하는 민주적 소통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³¹⁾

5. 나가는 말

칸트는 미적 판단이 주관적인 감정에 따른 판단이지만, 동시에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미적 판단은 개인의 사적 감각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자와의 상호적 소통을 통해 보편성을 모색하는 판단이다. 칸트는 한편으로는 미적 판단의 전제로서 공통 감각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적 판단이 곧 “일종의 공통 감각”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미적 공통 감각”으로서의 미적 판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칸트가 밝히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미적 소통의 가능성과 이를 통해 문화에 참여하는 미적 감정의 문제에 있다. 이런 점에서 “미적 공통 감각”은 여타의 합리적 소통이 갖는 한계를 넘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지시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의 소통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합리성은 스스로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비판과 물음을 항상 수반하는 합리성이어야 할 것이다. 미적 공통 감각은 이러한 비판과 물음을 문화에 던지는 우리의 ‘공통’ 감각이다.

31)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임성훈(2007), 「미학과 정치 - 아렌트가 읽어낸 칸트 미학의 정치적 함축성에 관한 소고」, 『미학대계』 제2권,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참고문헌

- 김중기(2004), 「칸트의 공통감과 그 독해의 문제」, 『대동철학』 제27집.
- 임성훈(2006), 「비판과 반성으로서의 미학 - 칸트의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타당성에 관하여」, 『미학』 제48집.
- 임성훈(2007), 「미학과 정치 - 아렌트가 읽어낸 칸트 미학의 정치적 함축성에 관한 소고」, 『미학대계』 제2권, 서울대학교출판부.
- Adorno, T. W.(1998),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Main.
- Arendt, Hannah(1989),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edited and with interpretive essay by Ronald Bein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옮김, 2002)
- Bartuschat, Wolfgang(1972), *Zum systematischen Ort von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Frankfurt am Main.
- Gadamer, Hans-Georg(1990), *Wahrheit und Methode -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진리와 방법』, 이길우 외 옮김, 문학동네, 2003)
- Goudeli, Kyriaki: “Kant’s Reflective Judgement: The Normalisation of Political Judgement”, *Kant-Studien* 94 Jg.
- Guyer, Paul(1997), *Kant and the Claim of Taste*, 2n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1974), *Kritik der Urteilskraft*, Bd. 10, Werkausgabe in zwölf Bänden, Wilhelm Weischedel (Hg.), Frankfurt am Main.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9; I. 칸트, 『판단력비판』, 이석윤 옮김, 박영사, 1996)
- Kulenkampff, J.(1995): “Vom Geschmacke als einer Art von sensus communis’. Versuch einer Neubestimmung des Geschmacksurteils”, *Autonomie der Kunst? Zur Aktualität von Kants Ästhetik*, Andrea Esser (Hg.), Berlin.
- Recki, Birgit(2001): “Achtung vor der zweckmäßigen Natur - Die Erweiterung der kantischen Ethik durch die dritte Kritik”, *Kant und die Berliner Aufklärung*. Akten

- des IX. Internationalen Kant- Kongresses, Bd. III, Berlin-New York.
- Tonelli, Giorgio(1957/58): “Von den verschiedenen Bedeutung des Wortes Zweckmäßigkeit in der Kritik der Urteilskraft”, *Kant-Studien* 49 Jg.
- Wenzel, Christian Harmut(2000), *Das Problem der Subjektiven Allgemeingültigkeit des Geschmacksurteils bei Kant*, Kant-Studien Ergänzungshefte 137, Berlin/ New York.

원고 접수일: 2011년 11월 1일

심사 완료일: 2011년 11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4일

ZUSAMMENFASSUNG

Gemeinsinn und ästhetische Kommunikation
in Kants Ästhetik

Lim, Seong Hoon

Kants berühmte These von der *Kritik der Urteilskraft* heisst die subjektive Allgemeingültigkeit des ästhetischen Urteils. Kant ist also der Auffassung, dass das ästhetische Urteil zwar subjektiv sein, jedoch es allgemeine Geltung haben und mitgeteilt werden soll. Dabei behandelt es sich um die Frage wie es überhaupt möglich ist.

Diese Arbeit stellt sich die Aufgabe, die Möglichkeit der ästhetischen Kommunikation in Bezug auf den Gemeinsinn(*sensus communis*) sinnvoll darzustellen. Dafür werden vor allem folgende Fragen gestellt. Was ist eigene Logik des ästhetischen Urteils, das sich fundamental von allen anderen Urteilen unterscheidet? Aus welchem Grund gibt es das Urteil, das zwar subjektiv, jedoch allgemein mitgeteilt werden kann? Wie kann man den Begriff des Gemeinsinns als Voraussetzung des ästhetischen Urteils verstehen? In welchem Verhältnis stehen ästhetische Urteile, Gemeinsinn und Kultur? Was ist eigentlich ästhetischer Gemeinsinn (*sensus communis aestheticus*) und wie bezieht er sich auf das Problem der Kommunikation?

Heutzutage kann der Begriff des Gemeinsinns in Bezug auf die Frage der Kommunikation überhaupt noch sinnvoll diskutiert werden?

Um hier gestellte Fragen zu beantworten, werde ich im zweiten Kapitel einen Überblick geben über die vier Momente (Interesselosigkeit, Begriffslosigkeit, Zweckmäßigkeit ohne Zweck und Notwendigkeit) des ästhetischen Urteils. Beim dritten Kapitel geht es um zwei Ebenen des ästhetischen Urteils. Im vierten Kapitel werde ich mit der Frage des Verhältnisses zwischen Gemeinsinn und ästhetischer Kommunikation beschäftigen. Im letzten Teil von dieser Arbeit wollte ich betonen, dass ästhetischer Gemeinsinn in jeder Hinsicht auf die Möglichkeit zur echten Kommunikation hinweist.